

크신 원력 수미산을 넘어 석주 크스님 문집간행위

“살아온 삶 그대로가 법문”



◇일생을 어린이 포교와 역경사업에 힘쓴 석주 스님.

석주 스님은 94세의 연세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바쁘시다. 포교를 위한 전 시회라면 수십장씩 글씨를 써 주시고 역경 사업을 위해서라면 어디든 달려가 법문을 해 주시기 때문이다.

스님의 수행 일화를 담은 문집이 나왔다. 역경과 포교, 도제양성 등 스님이 평생에 걸쳐 힘쓴 분야에서 인연을 맺은 원로 스님들과 재가자들의 글을 후학들이 2년에 걸쳐 묶어 세수 94세

생일에 맞춰 낸 것이다.

백양사 방장 서운 스님과 조계종 원로의원 진제 스님, 전 총무원장 고산 스님, 전국비구니회 회장 광우 스님을 비롯해 동국대학교 송석구 총장과 서석재 전 총무처장관, 통일문제 연구소 백기완 소장 등 129명의 글이 실려 있다. 원로 스님들은 주로 스님과의 인연과 수행 일화를 소개하고, 재가자들은 가까이서 보았던 스님의 모습을 담고



있다.

석주 스님은 1909년 경북 안동에서 태어나 23년 서울 선학원에서 남전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선학원에서 6

원로 스님·후학들이 떠낸 수행 일화 어린이 포교·역경 사업에 큰 발자취

년간의 행자생활을 했고 범어사 강원 의 전과정을 마쳤다. 이후 선학원 이사장과 두 차례에 걸친 조계종 총무원장, 조계종 초대 포교원장 등을 역임했다. 또 중앙승가대학을 설립해 승가 교육의 기반을 마련했으며, 동국역경원 이사장을 맡아 경전번역회에 앞장

섰다.

불교 발전을 위해 여러 방면에서 힘쓴 석주 스님은 특히 어린이 포교와 역경 사업에 큰 발자취를 남기고 있다. 스님은 법보원(法寶院)을 만들어 우리 말 불서를 펴냈다. 동국역경원이 설립되자 법보원의 모든 판권을 역경원에 넘겨준 것은 물론 역경원 부원장 소임을 맡아 20년 동안 한 번도 결근을 하지 않았다. 스님의 어린이에 대한 사랑도 남달랐다. 칠보사에 주석하실 때 아이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대웅전 현판을 '큰법당'이라고 쓰셨으며, 칠보사 소년소녀합창단을 만들어 찬불가

에 육탄장을 짓고 끝까지 앞장서신 것에 대한 존경의 글은 물론, 희비 문제로 애태우다 스님께 장학금을 받아 학업을 끝낸 지금은 교수가 된 이의 늦은 감사 편지도 실려 있다. 이런 석주 스님에 대해 직지사 조실 관음 스님은 “도심의 절에 살면서 평생을 검소하고 청정한 계율을 지키고 사신 안과 밖이 똑같은 분”이라고 평한다.

문집간행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송운(보문사 주지) 스님은 발간사에서 “석주 스님의 일생을 본받아 참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지침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책을 엮게 됐다”고 밝혔다.

스님이 일평생 가장 많이 쓴 ‘오유지족(吾唯知足)’이란 글귀에서 볼 수 있듯이 스님은 ‘자신에게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근면해야 한다’고 가르쳤고 또 그렇게 실천했다. 때문에 이 책에 실린 글을 읽다 보면 도원(조계종 원로회의장) 스님의 말씀대로 ‘당신이 살아오신 생애 자체가 법문’임을 깨닫게 된다. 값 2만 5천원.

출판 담당=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nia.com

스테디셀러 다키읽기

신문철요

〈신문철요〉(민족사)는 경허 스님이 선문(禪門)에서 수행의 지침으로 삼았던 중요한 어록과 눈을 가려 엮은 것을 우리말로 옮긴 것이다. 분디 상·하권으로 나왔는데 상권은 1907년 7월 청도 호거산 운문사에서, 하권은 이듬해 경남 동래 범어사에서 초간됐고 1923년 백성구가 삼장역희(三藏譯會)의 이름으로 국한대역본을 펴내기도 했다.

〈신문철요〉에는 중국선의 초조 보리달마의 〈혈맥론〉과 보리달마사행론을 비롯해 흥인 스님의 〈최상승론〉, 황벽선사의 〈완릉록〉, 풍산석이의 〈풍산법어〉, 보조국사 지눌의 〈수심결〉 등 16편의 어록과 논이 담겨 있다.

〈혈맥론〉은 보리달마의 혈맥이 견성성불(見性成佛)에 있음을 문답식으로 논술한 것이고 〈보리달마사행론〉은 도에



선학지침 주요어록·論
상하 2권 우리말 번역
선지식으로 삼을 책

이르는 두 길, 곧 이입(理入)과 행입(行入)을 제시하고 행입에서 보원행(報怨行)·수연행(隨緣行)·무소구행(無所求行)·칭법행(稱法行)의 네 가지 실천을 말하고 있다. 〈완릉록〉은 당나라 황벽회운이 완릉 개원사에서 한 설법을 제자 배후 스님이 엮은 문답체의 어록이다. 〈풍산법어〉는 송나라 풍산석이, 동산 송장주, 고담 그리고 고려의 나옹 스님 등 5사(師)의 설법 11편을 엮은 것으로 고려 말 해각 스님이 ‘환산정음 선사가 문신에게 주신 법어’ 등으로 간행했다.

〈신문철요〉가 문자를 금기시하는 선방에서도 널리 읽힌 까닭은, 간절히 참할 것을 당부한 고인들의 절절한 마음이 배어있기 때문일 것이다. 예로부터 불가에서는 스승없이 깨우쳤다는 자는 마구니로 여길 정도로 선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눈 밝은 이가 드물다고 꾸며놓지 않거나 책을 통해서라도 선지식의 가르침에 깊이 천착할 일이다. 값 2만 3천원

◇금주의 베스트블서 10

재평 9시이론 집계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그곳엔 부처도 갈 수 없다	대 우 현	현암사
2	회색고무신	윤 청 광	시공사
3	참선교육 1	현 담	도서출판선
4	영가천도	우 통 효	림
5	극락은 있다	관 정	붓디의마음
6	근본불교	이 중 표	민족사
7	해탈삼비다라카역주	임승택역주	가산문화
8	달라이라마의 행복론	달라이라마	김영사
9	왕초보 불교박사 되다	임 지 외	민족사
10	성철스님 사생이야기 1	원 택	김영사

도서 안내: (02)737-0695

깨달음으로 가는 외길
그곳엔 부처도 갈 수 없다
물리학 원리와 화엄경, 정장 佛의 선문답을 아울러 깨닫지 못한 누구라도 절대 경지를 엿보게 하는 책.
대형 150,000원, 원판사 전화: 365-5051-6, 팩스: 313-2729

화 Anger 틱낫한 지음·최수민 옮김

거기서 그것과... 틱낫한 지음·이현주 옮김



화니면 먼저 마음 돌이키라

‘마음 모음’ 수행법 담은 책

틱낫한 스님의 책 두 권이 한꺼번에 나왔다. 일상생활 속에서 화를 다스리는 법을 소개한 〈화 anger〉(명진출판)와 스님의 명상 수행법을 안내하는 〈거기서 그것과 하나 되시게〉(나무심는 사람)가 그것이다.

〈화 anger〉에서는 하루에도 몇 번씩 얼굴을 붉히게 되는 현대인들이 어떻게 화를 다스려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다. 스님은 집에 불이 났을 때 방화범을 잡기보다 불을 먼저 끄야 하는 것처럼 화가 날 때는 자신의 마음을 먼저 돌아보고 화를 세심하게 보살피야 한다고 말한다. 또 나를 화나게 한 사람에게 앙갚음을 하려고 하기보다 그 사람에게 편지를 써 볼 것을 권한다.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숨어 있던 화를 자극하는 요소는 대부분 타인과의 ‘관계’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또한 스님은 화를 다스림으로써 궁극적

으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깨닫게 된다고 말한다.

책의 뒷부분에는 앞서 설명한 방법들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 지침서인 ‘타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행세’ ‘마음이 너그러워지는 5가지 훈련’ ‘화를 다스리기 위한 호흡

법’ ‘몸의 긴장을 푸는 에너지 만들기’를 실었다. 값 8천9백원.

〈거기서 그것과 하나 되시게〉는 틱낫한 스님의 ‘마음 모음’ 수행법을 담은 책이다. 이 책을 관통하는 한결같은 주제는 ‘지금 여기 살라’는 가르침이다. 차를 마실 때는 차 마시는 일이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어야 하고, 걸을 때는 마땅히 자신이 걸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2장 ‘기적은 땅 위를 걷는 것’에서는 ‘마음 모음’을 하기 가장 좋은 수행법인 호흡법을 자세하게 설명한다. 매 순간마다 ‘마음 모음’ 수련을 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다. 그래서 스님은 일주일에 하루만이라도 수련의 날로 쓸 것을 권한다. ‘마음을 모아 사는 하루’는 복잡한 생활에서 온전한 휴식이 될 뿐 아니라 맑은 정신을 얻을 수 있는 수련이라고 말한다. 값 7천8백원.

천재 과학자들의 숨겨진 이야기

야마다 히로다카 지음·이민우 옮김



과학자 20인 성공 너머를 보니...

‘쓸모없는 아이, 가문의 명예를 훼손하는 아들’, ‘헛수고의 대가’, ‘문제에 얽매다’

이 말들은 각각 어린 시절의 다윈과 뉴턴, 아인슈타인에게 따라다녔던 수석아들이다. 하지만 이들은, 이런 어린 시절의 평가를 조롱하듯이 놀라운 발명과 발견으로 세기를 빛낸 과학자가 됐다. 남들과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이유로 무시당했지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빛나는 업적을 남길 수 있었다.

일반적인 전기물이 주인공의 성공

에 초점을 맞추는데 반해 〈천재 과학자들의 숨겨진 이야기〉(사람과 책은 뉴턴에서 괴델에 이르는 과학자 20인의 생애와 성공 이면의 눈물겨운 노력과 인간적인 면모를 소개하고 있다.

퀴리 부인은 오랜 기간 강력한 라듐 방사선에 노출돼 손에 커다란 화상을 입고 괴델은 어릴 때부터 강박신경증과 류머티즘에 시달렸지만

이들은 연구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 반면 나무에서 떨어지는 사과를 보고 만유인력을 발견했다는 일화로 유명한 뉴턴은 자신의 명성에 도전하는 다른 과학자의 업적을 철저히 말살하는 뜻밖의 행적을 보이기도 한다. 또 라부아지에가 사용했던 값비싼 실험 도구는 국민의 혈세로 구입한 것이고 그 때문에 프랑스혁명이 일어나자 라부아지에에는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졌다는 이야기 등 일반인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도 대단히 흥미롭다. 값 9천5백원.

참선교육 (선수행입문서)

♪ 月 - 참선은 아무나 하나 - ♪ 月

시간복, 건강복, 재복 등 세가지지를 갖춘 후에 대신심, 대본심, 대의정이 받쳐주어야 화두일념으로 확철대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재미있으면서도 분명한 「참선교육」 본 교재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권 참선의 목적, 종류, 자세는 물론 수행자가 택해야 할 음식이나 장소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 자세할이 지나쳐 세심할 정도인데, 참선 수행을 할 때, 암말을 신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까지 언급할 정도로 실제적인 내용.

2권 화두에 대한 정의와 참구법, 선사법문, 조사경책 등을 실었고, 심심 수행에서 흔히 겪게 되는 장애에 대한 해법을 소개. [화두의 중요성, 화두의 정의, 화두 참구법, 화두의 선택과 提提, 화두의 단계, 참선과 법로, 선법문 의식, 법거량 법도, 사빈주, 동념즉취 정념즉취, 임제의 법로, 선문답하는 법, 선사법문, 조사경책, 재미있는 참선특강(참선은 아무나하나, 평계없는 무덤은 없다, 참선과 주파수 등)]

3권 지리산 00선사와의 100년 100담으로 구성. 간접적이거나 하나 수행의 깊이에 대한 점검이 가능 [선사 백문백답]



기초에 나와 있는 해서적과 원전히 다른 조계종 수선회 참선교육 교재 ①, ②, ③권이 출판되었습니다. 불교서점이나 대형서점 불교코너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지방에 계시는 분은 전화로 연락 주시면 등기속달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 가격 1권(3권) 3만원(국민은행 023-01-0565-179 도서출판(株) 불전 판매 가능 ● 서울시 용문로 수송동 46-19 전화 732-5960

대한불교조계종 修禪會

北韓의 세계적인 神秘의 명산품 국내시판

北韓 金剛염주

2가지 소원이 꼭 성취된다는 神秘



北韓産 金剛염주

金剛 염주의 神秘

北韓의 세계적인 神秘의 명산품으로 서산대사의 고향이며 원효대사께서 참선 안거하시던 평안도 명산에서 소량이 생산되는 희귀 광석으로 약귀와 액운을 쫓고 건강과 소원이 성취된다는 염주입니다. 金剛염주는 몸에 지니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안정되며 神秘한 靈驗으로 잡귀들이 보기만 해도 도망쳐서 화를 쫓고 福을 부르는 最高의 염주입니다. 金剛염주는 현재도에서 氣와 원적의선 93%가 24시간 방출되는 세계 유일의 神秘의 염주입니다. 북한에서는 고위층 인사와 일부 스님만이 비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2000°C 불에 넣어도 녹거나 타지 않는 금강석과 같은 염주입니다.

선물로도 최고! 건강에도 최고!

신문문의 전화: (02)704-6868

전화로 주소 성명을 알려주시고 대금 195,000원을 아래구좌로 입금 또는 신용카드 결제하시면 전국 어느곳든 신비의 금강염주 SET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농협 743-02-563237 정해철

국내 유일의 金剛염주社
서울 용문로 46동 177 4880 4620

- 이런분은 꼭 사용하세요
- 중차대한 계획을 세우고 계신 분
 - 대학진학 수험생 부모님
 - 선거에 출마를 결심하신 분
 - 사업이 안되어 고민하고 계신 분
 - 아름답고 고인하고 계신 분
 - 중병으로 무병 중언인 분
 - 결혼배필을 찾고 계신 분
 - 승진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분